

칼럼

장기채 주필



은발의 현역이 더 행복하다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일이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노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량이 많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노후 생활을 풍요롭고 즐겁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노인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 하며 세월을 원망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나이를 먹었다는 핑계를 앞세우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된다. 설명 문벌이는 변변치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데다 실버쓰나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밀려오고 있다.

고령화라는 인구 재앙이 한국

에 다가오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면 고령사회, 14%가 되면 고령사회, 20%를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프랑스는 154년, 영국 99년, 미국은 90년, 독일은 77년 소요되었고, 일본은 35년 걸렸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올해를 기점으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가 154년 동안 달려온 길을 우리는 36년 만에 초고속 질주하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세계 신기록도 갈아 치울 테세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데도 고령친화산업의 진전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2050년경 한국은 전체소비자 3명 중 1명은 노인일 정도로 노인이 막강한 소비 주체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이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꾸준한 고령자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버산업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5.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에 관련한 압축 성장은 희소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령화사회 진입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의미하고 저성장의 일상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20대 인구는 1994년, 30대 인구는 200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60대 이상 인구만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익숙한 길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가보지 않은 길은 쉽게 가려 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과거에 비해 늘어난 세월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데 있다. 그런 길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나이에 뭐가 두렵다는 말인가.

설명 그 일에 도전해 뜻을 이루지 못하면 또 어떤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멋있고 당당한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아무도 자신의 삶에 짐걸대려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부모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지출해 고학력 자식 만들어 놓고 정작 부모들 스스로는 별 노후대책 없이 영검결에 노년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다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할 나이인데도 취업을 못한 자식의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퇴직 후 이런저런 일자리를 전전하는 중산층 노인도 많다.

노후 노년은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제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들어 고령화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지금부터라도 풍부한 직업경력과 인생 경험을 터득한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다. 그 외로움마저 홀홀 털어버리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시대 실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은발의 현역'이 더 행복한 이유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좋은 나라다.

社 說

재활용품 활용방안 제고해야

쓰고 난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방안이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뒤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니 국민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히 보인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 방안'을 19일 내놓고, 고품질로 재생되는 버려진 페트병을 현재 2만 9000t(지난해 기준)에서 2022년까지 10만t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는 고품질 페트병 2만2000t(연간)이 충분히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껏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들은 섞여서 배출, 수거돼 왔다. 이 과정에서 고품질 재활용에 적합한 무색 페트병과 먹는샘물 페트병까지 구분없이 혼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지역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 △거점수거 등 3가지 형태로 나눠 추진한다. 공동주택에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고, 단독주택에 선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 수거를 실시한다.

내년 7월부터는 공동주택 등 분리배출·수거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해 2021년에는 전국 공동·단독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색 있는 페트병과 접착라벨 사용금지 등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까지 시행하면 배출과 수거, 선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페트병 재활용이 촉진되는 셈이다.

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선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별업체에 지급하는 선별지원금을 선별품 품질 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향후 재활용 품목 분리배출체계를 전반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은 주택용소방시설로 지키세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점으로 어김없이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다. 추운 날씨로 오랜 기간 미사용한 난방기구 고장 및 조차 미숙 등으로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화재가 명확히 예상되는 계절인 만큼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 드린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불의 사용이 늘고 실내에서 활동이 증가하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중 겨울철 화재가 26.6%를 차지하여 사계절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 중 단독주택(97.1%) → 공동주택(2.3%) → 기타주택(0.6%) 순으로 주거

시설 중 단독주택의 화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각 지역 소방서에서 다각도로 지속적인 화재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발생률을 줄일 수 없다면 화재 발생 시 재빠르게 감지하고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실 천장에 부착하며 전동드라이버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킨다.

소화기는 소방차 2~3대의 화재진압 능력과 비교될 정도로 초기화재 진압 시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전기용품판매처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단독경보형감지기 6,000원, 소화기 15,000원 정도이다.

화재는 발생 횟수가 적을 뿐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한번의 발생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 독자 모두 화재 예방 임하는 자세를 더욱 신중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

오병준 / 함평119안전센터장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 수도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신고 123
-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